

## 믿음의 이유로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거절을 당한다면 당신은 집을 떠날 것인가? 이것이 추(Chue)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불교 국가에서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주로 끈끈한 공동체와 가족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픈도어의 사역자들은 라오스에서 뜨거운 오후에 추(Chue)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그가 나눈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밀리에 모인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속에서 조금은 두드러져 보이는 20대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하품을 하고 그의 시선은 조금은 먼 곳, 그러면서도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이 줄 수 있는 안정감, 기쁨, 그리고 소속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추(Chue)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도 기뻐하지만 사실 그는 가족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위로와 따뜻함 아닌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추(Chue)는 형과 삼촌이 그들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삼촌의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추(Chue)를 밧줄로 묶고,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추(Chue)에게 이전의 불교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계속 때릴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들은 추(Chue)를 줄로 그의 허리와 어깨, 그리고 등을 사정없이 때렸고, 특히 그의 형은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추(Chue)의 형은 그리 큰 키는 아니었지만 다부진 몸을 지니고 있었고, 손바닥으로 추(Chue)의 목과 얼굴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와 같은 매질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추(Chue)가 이와 같은 일들을 나눌 때, 그가 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의 이마와 오른쪽 뺨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그의 고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Chue)는 결혼한 남편이자 4개월 된 아이의 아버지이고, 라오스 북쪽에 있는 호몽(Hmong)족에 속합니다. 추(Chue)는 한때 핍박을 받았다가 오픈도어의 트라우마 상담을 받은 친척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Chue)의 아내는 위통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자 두 부부는 마을의 무당에게 찾아갔고, 결국 무당은 소, 돼지 그리고 그녀가 낳기 위해 제물

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Chue)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기에 무당이 말하는 제물들을 바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추(Chue)는 그의 삼촌 르하(Lha)\*를 찾아가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아내가 나았고, 이것으로 인해 추(Chue)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어서길 간절히 바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Chue)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서서히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핍박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추(Chue)가 어떻게 가족으로부터 도망쳤는지 궁금했고, 결국 추(Chue)는 이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추(Chue)의 아내는 임신 중 이었고, 그래서 추(Chue)는 아내를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장모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장모님 댁으로 간 뒤에 형과 삼촌의 추(Chue)의 오토바이를 가져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를 묶고, 이전의 불교신자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추(Chue)가 이전의 종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까지 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땅거미가 질 때쯤 추(Chue)는 예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과 삼촌에게 이전의 종교로 되돌아가겠다고 잠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묶여있는 추(Chue)를 풀어주었고, 추(Chue)는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추(Chue)는 다음날 아침 먼 곳에 있는 장모님 댁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댁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무작정 버스에 올라타고 지금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추(Chue)의 삼촌과 형 그리고 가족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추(Chue)를 발견하면 즉시 그를 묶고 죽기까지 매질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Chue)의 얼굴이 갖는 어두운 기색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Chue)

와 그의 아내는 그들의 핍박자인 그의 가족과 부족장으로부터 도망쳐 나왔고 지금은 그가 살았던 곳에서 24시간 정도 버스로 떨어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에 있는 반 누엑(Ban Neuk)\*으로 불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안에서 추(Chue)와 아내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추(Chue)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현대인의 성경). 반 누엑(Ban Neuk) 교회는 간증이 살아있는 곳으로 그 동안 라오스 전 지역에서 호몽(Hmong)족의 복음교회들은 핍박을 주로 받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핍박 받는 사람들에게 쉴 곳과 음식과 그 밖의 생활 필수품들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 누엑(Ban Neuk)교회는 추(Chue)가족에게 따뜻한 쉴 곳 이외에도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추(Chue)는 어머니가 그림고 만약으로 생각한 일들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마음에 참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 해주었으며 그는 이 마을에게 계속해서 지내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보안상 이름과 지명은 변경하였습니다.)



추(Chue)는 그의 삼촌 르하(Lha)\*를 찾아가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아내가 나았고, 이것으로 인해 추(Chue)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어서길 간절히 바라고 되었습니다.